

## 도쿠가와 이에미쓰

일본은 에도 시대(1603~1867년)에 들어 도쿠가와 막부의 치세에 따라 군웅할거의 시대로부터 홋카이도와 오키나와를 제외한 전국을 통일한 정치체제로 변화했습니다. 도쿠가와 막부 제3대 쇼군이었던 이에미쓰(1604~1651년)는 오닌의 난(1467~1477년) 때에 소실된 닌나지 절의 재건을 허가하고 자금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닌나지 절의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던 인물입니다.

역사적 사실에 따르면 이에미쓰가 1634년에 교토를 방문했을 때, 닌나지 절의 주지였던 가쿠진(1588~1648년)이 이에미쓰에게 알현을 요청하고 닌나지 절의 재건을 청원했습니다. 가쿠진은 황실의 직계 자손이며 다른 많은 승려들과 달리 특별한 입장에 있었습니다. 황실의 피를 이은 닌나지 절의 승려는 가쿠진 이전에도 있었지만, 가쿠진이 없었더라면 1640년부터 1646년에 걸쳐 이루어지게 된 재건 공사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없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가쿠진만큼 닌나지 절에 중요한 승려는 없습니다. 오늘날 닌나지 절 경내에 서 있는 대부분의 건물은 이 재건 시에 이에미쓰의 지원을 받아 지어진 것들입니다.